

## 대학생 내담자의 MBTI 성격유형과 MMPI 척도에서 나타난 임상적 특징

임 승 환                      김 택 호<sup>†</sup>                      박 제 일  
림스(Lim's)연구소                      조선대학교                      용인대학교

본 연구는 성격유형에 따른 임상적 특징을 규명하여 상담과 지도장면을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생활연구소에 상담하러온 학생들 중 MMPI의 최소 1개 척도에서 60점 이상인 48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에 따른 MMPI 척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MBTI의 내향성(I)이 외향성(E)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둘째, MBTI의 내향형(I)은 MMPI의 우울(D), 사고장애(Sc), 내향성(Si), 타당도 척도 F척도와, 외향형(E)은 MMPI의 조증(Ma)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MBTI의 직관형(N)은 MMPI의 히스테리(Hy) 척도와 상당한 관계가 있었으나, 감각형(S)은 MMPI의 다른 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넷째, MBTI의 사고형(T)과 감정형(F)은 MMPI의 다른 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내향적 사고형이나 내향적 감정형 모두 MMPI의 타당도 척도 F, 우울(D) 척도, 사고장애(Sc) 척도, 내향성(Si) 척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MBTI의 판단형(J)은 MMPI의 다른 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인식형(P)은 MMPI의 사고장애(Sc)척도와 조증(Ma) 척도와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섯째, MBTI의 2개 지표를 조합한 성격유형과 MMPI의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향적 사고형(ET) 집단의 경우 MMPI 타당도 척도 K와 조증(Ma) 척도의 상승, 내향적 감정형(IF) 집단의 경우 MMPI의 타당도 척도 F, 우울(D) 척도의 상승, 내향적 사고형(IT) 집단의 경우 MMPI의 내향성(Si) 척도의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Ekstrom(1998)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성격유형, 임상적 특징, MBTI, MMPI

<sup>†</sup> 교신저자 : 김택호,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부,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Tel : 011-9784-6332, E-mail : kimtackho@hanmail.net

융(Jung)의 성격유형론(Psychological Type)은 융(Jung)심리학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융(Jung)은 심리학적 유형은 정신에 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태도(외향성-내향성), 정신기능(감각-직관, 사고-감정)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그 조합에 의해 8가지 유형이 나타난다고 했다. 8가지 유형은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직관형, 내향적 감각형, 내향적 직관형, 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사고형, 내향적 감정형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유형은 정신병리와 매우 관련성이 깊다. 8가지 성격유형의 의식의 태도와 기능이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될 때, 무의식의 열등한 기능들이 과도한 보상작용을 하기 쉬우며 그 결과 유형별로 발생되기 쉬운 정신병리가 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태도가 과도하게 강한 사람은 히스테리성 신경증에 걸리기 쉽고, 내향적인 태도가 과도한 사람은 신경쇠약에 잘 걸리기 쉽다(이부영, 1978).

Ekstrom(1988)은 Jung의 성격유형이론과 Millon(1981)의 성격장애이론을 기초로 Jung의 성격유형이론과 DSM-III의 성격장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Ekstrom에 의하면 외향적 사고형(Extraverted Thinking: ET)은 부적응적이 될 때 교조주의와 외골수가 되기 쉬우므로 분열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가 되기 쉽다. 내향적 사고형(Introverted Thinking: IT)은 부적응적이 될 때 과도하게 방어적이고 철수적이 되기 쉬우므로 회피적 성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가 되기 쉽다. 외향적 감정형(Extraverted Feeling: EF)은 부적응적이 될 때 과도하게 요구적이고 타인을 조작하려하므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가 되기 쉽다. 내향적 감정형(Introverted Feeling: IF)은 부적응적이 될 때 과도하게 의존적이고 무기력하기 쉬우므로 의존성 성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가 되기 쉽다. 외향적 감각형(Extraverted Sensation: ES)은 부적응적이 될 때 비효율적이고 과도하게 저항적이므로 수동-공격성 성격장애(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Disorder)가 되기 쉽다. 내향적

감각형(Introverted Sensing: IS)은 부적응적이 될 때 통제하러하고 완벽주의가 되기 쉬우므로 강박적 성격장애(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가 되기 쉽다. 외향적 직관형(Extraverted Intuition: EN)은 부적응적이 될 때 반항적이고 무책임하기 쉬워 반사회적 성격장애(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가 되기 쉽다. 내향적 직관형(Introverted Intuition: IN)은 부적응적이 될 때 과대망상적이고 내적인 환상에 빠지기 쉬워 자기애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가 되기 쉽다고 했다.

Janowky, Morter, Hong과 Howe(1999b)는 기분장애인 양극성장애와 단극성장애 환자들의 MBTI 성격유형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단극성 장애환자 보다 외향성이 많았고 판단형이 적었다고 보고했다. Janowsky, Hong, Morter와 Howe(1999a)는 알콜 및 약물중독자(우울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MBTI 성격유형에 대해 연구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알콜 및 약물중독자는 일반인에 비해 내향성,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이 많았고, 우울증이 없는 알콜 및 약물중독자는 일반인에 비해 외향성, 감각형, 감정형, 판단형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Janowsky, Morter과 Hong(2002)은 기분장애 환자 중 자살성향이 높은 환자들의 MBTI 성격유형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살성향이 낮은 기분장애 환자에 비해 내향성과 인식형이 더 많았다고 보고했다. Janowsky, Hong, Moter와 Howe(2002)는 130명의 주요 우울증 환자들의 성격유형을 연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경우 성격유형의 선호도는 내향성(I), 감각형(S), 감정형(F), 그리고 인식형(P)이, 성격유형으로는 내향성-감각형-감정형-인식형(ISFP)과 내향성-직관형-감정형-인식형(INFP)이 유의하게 많았다고 보고했다. 남자의 경우 성격유형으로 내향성-감각형-감정형-인식형(ISFP)이 유의하게 많았다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성격유형과 임상적 특징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박경과 김명식(1995)은 MBTI의 내향적 감각형과 사고형은 MMPI의 Si 척도, 내향적 감정형은 MMPI의 F, D, Si 척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했다. 박경, 김명식, 강문희(1997)는 MBTI의 외향성이 MMPI의 Ma와, MBTI의 내향성은 MMPI의 D, Pt, Sc, Si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MBTI의 내향성과 판단형의 점수가 상승할수록 우울집단에 할당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다. 김명권과 심혜숙(1999)은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비행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MBTI의 외향성, 인식형과 사고형의 성향이 강하므로, 비행 문제에 대한 상담에 있어 외향·사고·인식형 청소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박제일과 임승환(2002)은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 내방해 상담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연구한 결과 주 호소 문제는 학업 및 진로문제, 성격문제, 정서 문제 등이 많았고, 이들의 MBTI 성격유형은 내향형과 직관형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김정택과 김영란(2005)이 성격유형의 다면성과 성격장애와의 상관을 연구한 결과 MBTI의 성격유형 중 외향성은 MMPI의 Ma, 내향성은 MMPI의 D, Si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NEO 성격모델의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노안영, 강영신, 2006; 유희정, 1987; 이인혜, 1997; 정민, 노안영, 2008).

MBTI의 성격유형의 임상적 특징에 관한 위의 선행 연구들은 성격유형별로 임상적인 특징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임상적 함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들은 MBTI 성격유형과 MMPI 척도의 전체점수(T점수)와의 단순 비교를 실시하였을 뿐 임상적 특징을 지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를 내방한 학생들 중 MMPI 검사의 적어도 1개 이상의 척도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내담자 481명의 대학생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MMPI 척도상에서 보이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유형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이러한 학생상담과

지도에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임상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서울소재 A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한 학생들 중 MMPI 척도상에서 한 척도라도 60점 이상을 보이는 481명을 선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295명, 여학생 186명이다.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3세이다. 전체 연구대상의 약 80%가 이전 상담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검사는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검사로서 김정택·심혜숙(1990)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성인용 MBTI 검사지, 컴퓨터 채점용 GA형 95문항을 사용하였다. MBTI 검사는 Jung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척도이다.

MBTI는 총 95문항이며, 외향성(Extraversion), 내향성(Introversion), 감각(Sensing: S), 직관(Intuition: N), 사고(Thinking: T), 감정(Feeling: F), 판단(Judging: J), 인식(Perceiving: P)의 8가지 선호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에서는 자가채점용 MBTI검사(MBTI-GS)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MBTI 검사의 신뢰도는 E/I지표: .77 S/N지표: .85 T/F지표: .81 그리고 J/P지표: .88로 검증되었다(김정택·심혜숙, 1990).

####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는 1943년 미네소타 대학병원에서 심리학자

Hathaway와 정신과 의사 Mckinly에 의해 진단적 평가를 위해 객관적 검사로 제작되었다. 이 검사는 5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판 표준화는 1956년 정병모, 진위교에 의해 이루어져 566문항 원형 검사와 383문항의 단축형 검사가 완성되었다. MMPI는 전체 14개 척도로 구성되어 4개척도(?, L, F, K)는 수검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8개척도(Hs, D, Hy, Pd, Pa, Pt, Sc, Ma)는 정신의학적 진단을 위해서, 2개척도(Mf, Si)는 성격과 행동의 중요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환 · 김재환 · 김중술 등(1989)이 표준화한 단축형 383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MBTI의 각 유형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각 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MBTI 각 척도를 연속점수로 변환하여 MMPI의 각 척도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0.0을 사용하였다.

첫째, MMPI의 각 임상척도들(Hs, D, Hy, Pd, Pa, Pt, Sc, Ma, Mf, Si) 중 한 척도에서 60점 이상인 내담자들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성격유형 분포를 살펴보았다. 둘째, MBTI 지표의 연속점수들과 MMPI의 임상척도 점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MBTI의 2차원을 조합한 4가지 유형들에 대한 MMPI 척도들의 점수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하였다. 넷째, MBTI의 16가지 유형에 대한 MMPI척도들의 점수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하였다. 다섯째, MBTI 지표의 연속점수들의 변량을 설명하는 MMPI 척도들을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격유형 분포 분석

본 연구는 학생생활연구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MMPI 검사결과 한 척도라도 60점 이상으로 보고된 481명을 연구집단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성격유형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격유형 분포도

구분	연구대상	
	사례	%
ISTJ	106	22.0
ISTP	37	7.7
ESTP	10	2.1
ESTJ	18	3.7
ISFJ	42	8.7
ISFP	37	7.7
ESFP	14	2.9
ESFJ	5	1.0
INEJ	26	5.4
INFP	49	10.2
ENFP	11	2.3
ENEJ	6	1.2
INTJ	47	9.8
INTP	53	11.0
ENTP	7	1.5
ENTJ	13	2.7
전체	481	100

표 1에 나타난 연구대상 집단의 MBTI 성격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내향형(I)과 외향형(E)의 경우 내향형이 82.5%, 외향형이 17.5%로 내향형이 많게 나타났고, 감각형(S)과 직관형(N)을 살펴보면, 감각형이 55.9%, 직관형이 44.1%로 감각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형(T)과 감정형(F)의 경우는 사고형이 60.5%, 감정형이 39.5%로 사고형이 많았으며, 판단형(J)과 인식형(P)의 경우는 판단형이 55%, 인식형이 45%로 판단형이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16가지 유형을 살펴볼 때, ISTJ, INTP, INFP, INTJ, ISFJ, ISTP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BTI 각 지표와 MMPI 척도점수와의 상관관계분석

MBTI의 지표들과 MMPI 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MBTI의 각 지표들은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점수인 연속점수로 변환하였다. 그 변환공식은 I·N·F·P 지표의 경우, 표준점수=100+각 지표의 환산점수이다. E·S·T·J의 경우, 표준점수=100-각 지표의 환산점수가 된다. 그러므로 상관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상관계수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면 I·N·F·P 지표와의 상관관계로 해석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상관계수가 부적인 상관이 있으면, E·S·T·J 지표와의 상관관계로 해석하면 된다(표2).

MBTI 각 지표와 MMPI 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MBTI의 E/I지표가 MMPI 척도들 중 F, D, Sc, Si척도와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 MBTI의 내향성(I) 지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K, Pd, Ma 척도와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MBTI의 외향성(E) 지표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MBTI의 S/N 지표와 MMPI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Hs, Hy, Mf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MBTI의 직관형(N)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N 지표와 MMPI 척도들 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는 낮으므로 실제적인 의미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MBTI의 T/F지표와 MMPI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을 나타냈다. Mf 척도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상관계수는 매우 낮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 MBTI의 J/P 지표와 MMPI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F, Hs, Hy, Pd, Pa, Sc, Ma 척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MBTI의 인식형(P)과 정적 상관

표 2. MBTI 지표와 MMPI 척도사이의 상관관계

MBTI 지표 \ MMPI척도	E/I	S/N	T/F	J/P
L	-.0196	.0444	-.0272	-.0839
F	.1834***	.1009*	-.0105	.2498***
K	-.1516***	.0097	.0244	-.1423**
Hs	.0413	.1262**	.0163	.1176**
D	.2696***	-.0393	.0149	.1107*
Hy	.0116	.1811***	.0096	.1592***
Pd	-.1175**	.0475	-.0055	.1185**
Mf	-.0094	.1044*	.0962*	.0459
Pa	.0149	.0259	.0295	.1902***
Pt	-.0020	-.0383	.0003	.0557
Sc	.1336**	.0636	.0045	.3022***
Ma	-.1765***	.0701	-.0867	.2087***
Si	.4941***	-.0106	.0643	.0434

계가 있다. 반면에 K척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MBTI의 판단형(J)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MBTI의 2가지 선호도 조합에 따른 성격유형별 MMPI의 차이**

MBTI를 2가지 선호도에 따라서 조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2가지 조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으며, 그 외의 조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아 결과보고를 생략하였다. 다음은 몇 가지 척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된 선호도 조합에 따른 결과이다.

**MBTI 2차원을 조합한 1집단(IS, IN, ES, EN)**

조사대상 481명을 MBTI의 ES(n=47), EN(n=37), IS(n=222), IN(n=175)의 4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MMPI의 각 척도들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ES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척도는 Ma였다. EN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척도는 Ma, K 척도였다. IN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척도는 F, Hs, D, Hy, Sc, Si 척도였다. IS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집단은 F, D, Si 척도였다.

**MBTI 2차원을 조합한 2집단(ET, EF, IT, IF)**

조사대상 481명을 MBTI의 ET(n=48), EF(n=36), IT(n=243), IF(n=154)의 4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MMPI의 각 척도들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ET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척도는 K, Ma 척도였다. EF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척도는 Ma 척도였다. IF 척도와 IT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척도는 두 집단 모두 F, D, Sc, Si 척도였다.

표 3. MBTI 2차원을 조합한 1집단(IS, IN, ES, EN)에 따른 MMPI 척도들의 변량분석

유형 MMPI	각 집단별 평균				F	사후검증
	IS	IN	ES	EN		
L	50.19	51.18	50.96	51.38	.39	NS
F	54.93	57.78	52.17	50.32	8.66***	IN>EN'ES'IS, IS>EN
K	49.91	49.86	53.43	54.84	3.87**	EN>IN'IS
Hs	51.78	56.31	51.21	53.08	3.02*	IN>IS
D	62.34	62.29	56.74	52.14	13.96***	IS>EN'ES, IN>EN'ES
Hy	55.73	60.10	57.53	57.14	6.88***	IN>IS
Pd	55.06	56.21	58.64	58.70	2.66*	NS
Mf	53.29	55.35	53.15	56.14	1.81	NS
Pa	54.74	56.61	57.66	51.97	3.17*	NS
Pt	59.33	59.79	65.32	43.00	1.97	NS
Sc	58.10	59.86	55.64	54.81	3.93**	IN>EN
Ma	46.14	47.48	50.64	52.65	5.96***	EN>IS'IN, ES>IS
Si	58.28	58.23	44.04	43.00	51.01***	IS>EN'ES, IN>EN'ES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표 4. MBTI 2차원을 조합한 2 집단(ET, EF, IT, IF)에 따른 MMPI 척도들의 변량분석

MMPI	유형	각 집단별 평균				F	사후검증
		ET	EF	IT	IF		
L		52.08	49.89	50.71	50.50	.41	NS
F		50.88	52.00	56.33	55.96	5.67***	IT>ET, IF>ET
K		54.58	53.33	49.59	50.37	4.03**	ET>IT
Hs		52.15	51.89	53.48	54.24	.34	NS
D		53.81	55.92	62.25	62.42	12.78***	IF>ET'EF, IT>ET'EF
Hy		57.42	57.28	57.55	57.82	.05	NS
Pd		58.33	59.11	55.72	55.32	2.32	NS
Mf		53.38	55.92	53.44	55.41	1.51	NS
Pa		55.33	54.92	55.23	56.10	.26	NS
Pt		61.88	56.72	59.09	60.23	.38	NS
Sc		54.15	56.78	59.02	58.66	3.39*	IT>ET, IF>ET
Ma		52.29	50.50	47.50	45.52	6.55***	ET>EF'IT, EF>IF
Si		42.47	45.03	57.60	59.30	52.78***	IF>ET'EF, IT>EF'ET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MBTI 16가지 유형에 따른 MMPI 척도들의 변량 분석**

연구대상 481명을 각 성격유형에 따라 ISTJ(n=106), ISTP(n=37), ESTP(n=10), ESTJ(n=18), ISFJ(n=42), ISFP(n=37), ESFP(n=14), ESEJ(n=5), INEJ(n=26), INFP(n=49), ENFP(n=11), ENFJ(n=6), INTJ(n=47), INTP(n=53), ENTP(n=7), ENTJ(n=13)로 구분하여 MMPI 각 하위척도들의 점수를 변량 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MMPI의 F척도의 점수는 MBTI의 INTP 유형이 ESTJ, ENTJ, ISTJ, SEJ 보다, ISTP의 경우 ESTJ, ISTJ, ENTJ 보다 높았다. 또한 ESTP, INFP, ISFP, INTJ의 F 척도 점수가 ESTJ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MMPI의 K척도의 점수는 ENTJ가 ISTP, INTP, ISFP, INTJ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MMPI의 Hs척도의 점수는 INTP가 ISTJ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MMPI의 D척도의 경우 INTP, ISTP, ISFP, INTJ, ISTJ, SEJ, INFP가 ENFP, ESTJ, ENTJ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INEJ, ESFP의 D 척도 점수가 ENFP, ESTJ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MMPI의 Hy척도의 경우, INTP가 ISTJ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MMPI의 Sc척도의 경우, ISTP, INTP가 ESTJ, ENTJ, ISFJ, ISTJ, INTJ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ISFP, INFP의 Sc 점수 척도가 INTJ, ISFJ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MMPI의 Ma척도의 경우, ESTP가 INTJ, SEJ, ISTJ에 비해, ENTP가 INTJ에 비해, ENFP, INTP가 INEJ, SEJ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MMPI의 Si척도의 경우, SEJ가 ESTJ, ENTJ, ENFP, ENTP, ENFJ, ESTP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ISTP, ISFP, INTP의 Si 척도 점수가 ESTJ, ENTJ, ENFP, ENFJ, ESTP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ISTJ의 Si 척도 점수가 ESTJ, ENTJ, ENFP, ESTP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ENFP, INFP의 Si 척도 점수가 ESTJ, ENTJ, ENFJ, ESTP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표 5. MBTI 16가지 유형에 따른 MMPI 척도들의 변량분석

MMPI	유형	각 집단별 평균								F	사후검증 (Tukey)
L	ISTJ	50.42	ISTP	48.05	ESTP	46.90	ESTJ	53.28	.97		
	ISFJ	51.05	ISFP	50.70	ESFP	50.57	ESTJ	51.80			
	INEJ	51.92	INFP	49.12	ENFP	49.54	ENEJ	47.33			
	INTJ	52.43	INTP	51.62	ENTP	48.29	ENTJ	56.46			
F	ISTJ	53.04	ISTP	60.05	ESTP	59.90	ESTJ	46.22	4.72***	14>4'16'15, 2>4'1'16, 3>4, 10>4, 6>4, 13>4	
	ISFJ	54.02	ISFP	69.24	ESFP	55.71	ESTJ	48.20			
	INEJ	55.65	INFP	57.57	ENFP	51.00	ENEJ	48.33			
	INTJ	55.70	INTP	60.85	ENTP	53.29	ENTJ	49.08			
K	ISTJ	51.47	ISTP	45.22	ESTP	50.40	ESTJ	54.44	2.36**	16>2'14'6'13	
	ISFJ	50.93	ISFP	49.00	ESFP	52.86	ESTJ	57.40			
	INEJ	50.92	INFP	50.63	ENFP	51.27	ENEJ	54.83			
	INTJ	50.15	INTP	48.38	ENTP	48.71	ENTJ	61.15			
Hs	ISTJ	50.12	ISTP	53.62	ESTP	51.00	ESTJ	50.78	1.28	14>1	
	ISFJ	52.24	ISFP	54.16	ESFP	50.64	ESTJ	54.80			
	INEJ	55.92	INFP	55.12	ENFP	52.36	ENEJ	51.50			
	INTJ	53.00	INTP	60.53	ENTP	59.29	ENTJ	51.08			
D	ISTJ	61.45	ISTP	64.08	ESTP	62.00	ESTJ	50.17	4.56***	2'14'6>11'4'16, 13'1'5'10>11'4'16, 9'7>11'4,	
	ISFJ	62.05	ISFP	63.46	ESFP	63.14	ESTJ	52.00			
	INEJ	62.15	INFP	62.08	ENFP	48.54	ENEJ	55.83			
	INTJ	60.87	INTP	63.79	ENTP	57.00	ENTJ	50.85			
Hy	ISTJ	54.50	ISTP	58.49	ESTP	59.70	ESTJ	55.22	2.19**	14>1	
	ISFJ	55.26	ISFP	57.00	ESFP	60.79	ESTJ	52.40			
	INEJ	59.50	INFP	59.73	ENFP	56.00	ENEJ	55.50			
	INTJ	59.38	INTP	61.36	ENTP	58.71	ENTJ	58.00			
Pd	ISTJ	54.97	ISTP	58.57	ESTP	63.80	ESTJ	55.33	1.86*		
	ISFJ	52.36	ISFP	54.89	ESFP	61.14	ESTJ	53.20			
	INEJ	56.96	INFP	57.33	ENFP	59.36	ENEJ	58.83			
	INTJ	54.47	INTP	56.36	ENTP	53.57	ENTJ	60.85			
Mf	ISTJ	52.76	ISTP	52.14	ESTP	54.30	ESTJ	51.17	1.49		
	ISFJ	54.59	ISFP	54.49	ESFP	55.07	ESTJ	52.60			
	INEJ	58.23	INFP	55.31	ENFP	56.27	ENEJ	60.00			
	INTJ	54.57	INTP	54.68	ENTP	55.14	ENTJ	49.38			



대학생 내담자의 MBTI 성격유형과 MMPI 척도에서 나타난 임상적 특징

MMPI	유형	각 집단별 평균								F	사후검증 (Tukey)
Pa	ISTJ	52.99	ISTP	59.35	ESTP	60.70	ESTJ	55.72	2.18**		
	ISFJ	53.09	ISFP	57.03	ESFP	59.93	ESTJ	52.20			
	INFJ	55.58	INFP	58.24	ENFP	54.63	ENEJ	46.00			
	INTJ	56.00	INTP	56.13	ENTP	55.71	ENTJ	50.46			
Pt	ISTJ	57.08	ISTP	62.62	ESTP	59.90	ESTJ	73.39	.88		
	ISFJ	59.74	ISFP	62.03	ESFP	62.50	ESTJ	55.00			
	INFJ	59.19	INFP	59.86	ENFP	52.36	ENEJ	52.67			
	INTJ	56.83	INTP	62.66	ENTP	55.71	ENTJ	50.77			
Sc	ISTJ	55.89	ISTP	64.78	ESTP	61.40	ESTJ	49.78	4.81***	2'14>4'16'5'1'13, 6'10>4	
	ISFJ	55.48	ISFP	60.89	ESFP	60.00	ESTJ	53.00			
	INFJ	57.77	INFP	60.18	ENFP	55.64	ENEJ	54.50			
	INTJ	56.28	INTP	63.77	ENTP	57.14	ENTJ	53.00			
Ma	ISTJ	45.84	ISTP	49.44	ESTP	57.20	ESTJ	49.00	3.58***	15>13, 3>13'5'1 11'14>13'5	
	ISFJ	43.45	ISFP	46.81	ESFP	48.57	ESTJ	49.20			
	INFJ	41.50	INFP	48.45	ENFP	56.09	ENEJ	45.83			
	INTJ	46.28	INTP	50.58	ENTP	57.29	ENTJ	50.38			
Si	ISTJ	56.71	ISTP	59.44	ESTP	46.20	ESTJ	39.76	11.14***	5>4'16'11'15'12'3, 2'6'14>4'16'11'12'3, 1>4'16'11'3 11'10>4'16'12'3	
	ISFJ	60.43	ISFP	59.14	ESFP	46.36	ESTJ	47.80			
	INFJ	59.19	INFP	58.51	ENFP	41.82	ENEJ	45.50			
	INTJ	56.64	INTP	58.91	ENTP	45.14	ENTJ	41.69			

\* 1(ISTJ), 2(ISTP), 3(ESTP), 4(ESTJ), 5(ISFJ), 6(ISFP), 7(ESFP), 8(ESFJ), 9(INFJ), 10(INFP), 11(ENFP), 12(ENEJ), 13(INTJ), 14(INTP), 15(ENTP), 16(ENTJ)

**MBTI의 각 지표들에 대한 MMPI 척도점수들의 회귀분석**

MBTI의 각 지표 E/I, S/N, T/F, J/P에 대한 MMPI 척도들의 설명변량을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이 중다 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계적 방식(Stepwise Method)을 사용하였다.

**E/I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E/I 지표, S/N 지표, T/F 지표, J/P 지표를 설명하는 MMPI 척도들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 표 6부터 표 9까지 제시하였다.

MMPI의 E/I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MMPI 척도는 Si( $\beta = .59, p < .01$ ), Pt( $\beta = -.10, p < .01$ ), Ma( $\beta = -.10, p < .01$ )였다. MMPI의 Si 척도는 MBTI의 I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했고, MMPI의 Pt, Ma 척도는 MBTI의 E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했으나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매우 작아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MMPI의 Si 척도가 MBTI의 I 지표를 예측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MMPI의 S/N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MMPI 척도는 Hy( $\beta = .23, p < .01$ ), D( $\beta = -.21, p < .01$ ), Ma( $\beta = -.12, p < .01$ )였다. MMPI의 Hy, F 척도는 MBTI의 N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했고, MMPI의 D 척도는 MBTI

표 6. E/I 지표에 대한 MMPI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인	R2	B	SE B	Beta	t	sig P
Si	.3588	.7476	.0484	.5957	15.448	.0000
Pt	.3694	-.0591	.0217	-.1014	-2.72	.0067
Ma	.3788	-.1381	.0515	-.1008	-2.68	.0075
(Constant)	82.4916	4.1026				

표 7. S/N 지표에 대한 MMPI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인	R2	B	SE B	Beta	t	sig P
Hy	.0311	.4566	.0968	.2369	4.72	.0000
D	.0517	-.3712	.0940	-.2111	-3.95	.0001
F	.0651	.2419	.0928	-.1289	2.61	.0095
(Constant)	79.5458	6.2829				

표 8. T/F 지표에 대한 MMPI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인	R2	B	SE B	Beta	t	sig P
Mf	.0089	.1482	.0717	.0944	2.07	.0393
(Constant)	86.9423	3.9663				

표 9. J/P 지표에 대한 MMPI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인	R2	B	SE B	Beta	t	sig P
Sc	.0972	.5314	.0894	.2669	5.94	.0000
Ma	.1205	.3147	.0889	.1589	3.54	.0004
(Constant)	51.8592	5.7783				

의 S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MMPI의 T/F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MMPI 척도는 Mf( $\beta=.09$ ,  $p<.05$ )였다. MMPI의 Mf 척도가 MBTI의 F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그러나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매우 작아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MMPI의 J/P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MMPI 척도는 Sc( $\beta=.26$ ,  $p<.01$ ), Ma( $\beta=.15$ ,  $p<.01$ )였다. MMPI

의 Sc 척도와 Ma 척도 모두 MBTI의 P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MPI의 최소 1개 척도에서 60점 이상을 보이는 481명의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은 전체적으로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이 훨씬 많았다. 둘째, MBTI의 지표와 MMPI의 척도와의 상관을 산출했다. 그 결과 MBTI의 내향성(I)은 MMPI의 사회적 내향성(Si) 척도와 상관이 높은 반면, 외향성(E)은 MMPI의 타당도 척도(K), 반사회성 척도(Pd), 조증(Ma) 척도와 상관이 있었으나 그 절대값이 작아 큰 의미는 없었다. MBTI의 감각형(S)은 MMPI의 척도들과 상관이 없었고, 직관형(N)은 MMPI의 심기증(Hs), 히스테리(Hy), 남성성-여성성(Mf) 척도와 상관이 있었으나 그 절대값이 작아 큰 의미는 없었다. MBTI의 사고형(T)은 MMPI의 척도들과 상관이 없었고, 감정형(F)은 MMPI의 남성성-여성성 척도(Mf)와 상관이 있었으나 그 절대값이 작아 큰 의미는 없었다. MBTI의 판단형(J)은 MMPI의 타당도 척도(K)와 상관이 있었으나 그 절대값이 작아 큰 의미가 없었다. MBTI의 인식형(P)은 MMPI의 사고장애 척도(Sc)와 조증(Ma) 척도와 상관이 있었고, 다른 MMPI 척도들과의 상관은 그 절대값이 작아 큰 의미가 없었다. 셋째, MBTI의 2가지 지표를 조합한 성격유형별 MMPI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향적 감각형(ES) 집단은 MMPI의 조증(Ma) 척도와 외향적 직관형(EN) 집단은 MMPI의 조증 척도(Ma), 타당도 척도(K)의 점수가 높았다. 내향적 감각형(IS) 집단은 MMPI의 타당도 척도(F), 우울 척도(D), 내향성 척도(Si)와 내향적 직관형(IN) 집단은 MMPI의 타당도 척도(F), 심기증 척도(Hs), 히스테리 척도(Hy), 우울 척도(D), 사고장애 척도(Sc), 내향성 척도(Si)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외향적 사고형(ET) 집단은 MMPI의 타당도 척도(K), 조증 척도(Ma)와 외향적 감정형(EF) 집단은 MMPI의 조증 척도(Ma)의 점수가 높았다. 내향적 사고형(IT) 집단과 내향적 감정형(IF) 집단 모두 MMPI의 타당도 척도(F), 우울 척도(D), 사고장애 척도(Sc), 내향성 척도(Si)의 점수가 높았다. 넷째,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별 MMPI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내향형(I)이 외향형(E)보다 MMPI의 임상척도의 값이 컸다. 즉 MBTI의 INTP, ISTP 등은 MMPI의 우울 척도(D)와 사고장애 척도(Sc)의 점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MBTI의 ISTP,

ISFP, INTP 등은 MMPI의 내향성 척도(Si)의 점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MBTI의 ESTP, ENTP 등은 MMPI의 조증 척도(Ma)의 점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MBTI의 각 지표에 대한 MMPI 척도들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MPI의 내향성 척도(Si)가 MBTI의 내향형(I)을 유의하게 예측했고, MMPI의 히스테리 척도(Hy)가 MBTI의 직관형(N)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MMPI의 사고장애 척도(Sc)와 조증 척도(Ma)가 MBTI의 인식형(P)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본 연구에서 MBTI의 내향형(I)은 MMPI의 우울 척도(D), 사고장애 척도(Sc), 내향성 척도(Si), 타당도 척도(F)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Ekstrom(1988), Janowsky 등(1999a), Janowsky 등(2000), 박경과 김명식(1995), 박경, 김명식, 강문희(1997), 박제일과 임승환(2002), 김정택과 김영란(200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내향적 성향이 많을수록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대인관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MBTI의 외향형(E)은 MMPI의 조증 척도(Ma)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Ekstrom(1988), Janowsky 등(1999b), 박경, 김명식, 강문희(1997), 김명권과 심혜숙(1999), 김정택과 김영란(2005)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외향적 성향이 많을수록 충동성과 행동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각종 비행과 약물사용 등 반사회적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MBTI의 직관형(N)은 MMPI의 히스테리 척도(Hy)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지 않았고, Ekstrom(1988)이 외향적 직관형의 경우 부정적응적이 될 때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간접적인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MBTI의 감각형(S)은 MMPI의 대다수 척도들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Ekstrom(1988), Janowsky 등(2002), 김정택과 김영란(2005)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MBTI 사고형(T)과 감정형(F)은 MMPI의 척도들과

의미 있는 상관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내향적 사고형(IT)이나 내향적 감정형(IF) 모두 MMPI의 타당도 척도(F), 우울 척도(D), 사고장애 척도(Sc), 내향성 척도(Si)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Ekstrom(198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내향적 사고형(IT)이나 감정형(IF)이 부적응적이 될 때, 우울하고 회피적이거나 의존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BTI의 판단형(J)은 MMPI의 척도들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박경, 김명식, 강문희(1997)의 연구에서 MBTI의 판단형(J)의 점수의 상승이 우울증의 상승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불일치한 결과이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MBTI의 판단형(J)과 임상적 특징에 대한 보고가 없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MBTI의 인식형(P)은 MMPI의 사고장애 척도(Sc)와 조증 척도(Ma)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김명권과 심혜숙(1999), 김정택과 김영란(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형(P)이 증가하고 부적응적이 될 때, 사고장애와 충동조절장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MBTI의 2가지 지표를 조합한 MBTI 성격유형별 MMPI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Ekstrom(199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있었다. 외향적 사고형(ET) 집단의 경우 MMPI 타당도 척도(K), 조증 척도(Ma)와 정적 관계를 보였고, 내향적 감정형(IF) 집단의 경우는 MMPI의 타당도 척도(F), 우울 척도(D)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내향적 사고형(IT) 집단의 경우는 MMPI의 내향성 척도(Si)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Ekstrom이 지적한 대로 부적응적이 될 때 외향적 사고형(ET)은 교조주의와 외곶수가 되기 쉽고, 내향적 감정형(IF)은 의존적이고 무기력적이기 쉬우며, 내향적 사고형(IT)은 과도하게 방어적이고 철수하기 쉽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외의 나머지 MBTI의 2가지 지표를 조합한 성격유형들의 경우 MMPI의 척도들과 명확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는 Ekstrom(1998)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이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성격유형은 검사결과 뿐만 아니라 응답자와의 면담과 워크샵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MMPI 점수만을 근거로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점이다. 임상적 특징을 보다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제유형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고, MMPI 척도 점수는 응답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지 못했다. 셋째, 사례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 성격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했을 경우 유형별에 따른 사례수가 적게 배정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MMPI 척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척도에서 60점 이상의 T점수를 보이는 48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그에 따른 임상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MMPI 척도상에서 보이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유형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결과들이 학생상담과 지도에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정택, 심혜숙(1990). “성격유형검사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3, pp. 44-72.
- 김명권, 심혜숙(1999).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비행의 관계. *남자인식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유형학회지*, Vol. 6, No. 1, pp. 51-63.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1989).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

- 국 가이던스.
- 김정택, 김영란(2005). 성격유형의 다면성과 성격장애와의 상관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 박 경, 김명식(1995). “심리유형과 심리적 장애에 관한 일 연구 - MMPI, 16PF에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림상, 14(1), 201-217.
- 박 경, 김명식, 강문희(1997). 성격유형의 임상적인 특징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9(1), 209-225..
- 박제일, 임승환(2002). 대학생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유형과 성격유형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Vol. 9, No. 1, pp. 15-29.
- 이부영(1978).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113-175.
- 노안영, 강영신(2006).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유희정(1987). 노인의 성격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외-내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1-8.
- 이인혜(1997). 성격, 유쾌한 및 불쾌한 생활경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NEO 성격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209-219.
- 정민, 노안영(2008). 대학생의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373-387.
- Ekstrom, S. R.(1988). Jung's typology and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33, 329-344.
- Janowsky, D.S., Hong, E., Morter, S., & Howe, L.(2002). Myers 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profiles in unipolar depressed patients. *World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26, 18-27.
- Janowsky, D.S., Hong, L., Morter, S., Howe, L.(1999a). Underlying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Alcohol/Substance-Use Disorder Patients with and without an affective disorder. *Alcohol and Alcoholism*, 34(3), 370-377.
- Janowsky, D.S., Morter, S., Hong, L., Howe, L.(1999b). Myers Briggs Type Indicator and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differences between bipolar patients and unipolar depressed patients. *Bipolar Disorder*, 1(2), 98-108.
- Janowsky, D.S., Morter, S., Hong, L.(2000). Relationship of Myers 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o suicidality in affective disorder 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6(1), 33-39.
- Millon, T.(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II : Axis II*. New York: Wiley.
- Myers I. B. & M. H. Macaulley(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김정택 · 심혜숙 · 제석봉 역(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Myers I. B., with P. B. Myers(1980). *Gifts differing: Understanding personality type*. Palo Alto, CA: Davies-Black; 김정택 · 심혜숙 · 임승환 역(1993).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서울;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원고접수일 : 2008.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1. 3.

게재결정일 : 2008. 11. 13.

## MBTI Personality Types and MMPI Clinical Characteristics Profiles of Clients at College Counseling Centers

Seung-Hwan Lim	Tack-Ho Kim	Je-Il Park
Lim's Institute	Chosun University	Yong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actical and effective implications in for the fields of counseling and guidance, by exploring clinic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personality profiles. To do so, students who scored at a clinically significant level on at least one MMPI clinical subscale were recruited from college counseling centers. Based on the above criteria, a total of 481 clients were examined on their MBTI and MMPI profiles.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ore introvert (I) personality types than extroverts (E) in the MBTI pool. Second, while the Introversion (I) scale in MBTI was related to three clinical scales Depression (D), Schizophrenia (Sc), and Social Introversion (Si) and one validity scale Infrequency (F) of the MMPI, the Extroversion (E) scale in MBTI was related to only one clinical scale Hypomania (Ma). Third, while the Intuition (N) scale in MBTI was related to Hysteria (Hy) in MMPI, the Sensing (S) scale in MBTI was not related to any scales in the MMPI. Fourth, while the individual Thinking(T) and Feeling(F) scales of the MBTI were not related to any MMPI scales, introvert thinking (IT) and introvert feeling profiles (IF)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one validity scale Infrequency (F) and three clinical scales Depression (D), Schizophrenia (Sc), and Social Introversion (Si) of the MMPI. Fifth, while the MBTI Judging (J) scale was not related to any MMPI scales, the MBTI Perceiving (P) scale was related to two clinical scales Schizophrenia (Sc) and Hypomania (Ma). Sixth, according to the results based on combination of two MBTI subscales, the extrovert thinking (ET) group had higher scores on one validity scale Correction (K) and one clinical scale Hypomania (Ma) in the MMPI. In addition, whereas the introvert feeling (IF) group had higher scores on one validity scale Infrequency (F) and one clinical scale Depression (D), the introvert thinking (IT) group had higher scores on one clinical scale Social Introversion (Si) in the MMPI. The results of this study partially support Ekstrom (1988)'s theor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personality types, clinical characteristics, MBTI, MMPI.